

祝辭

保健福祉部次官 李 京 濤



古來로부터 우리나라 韓方醫藥의 傳統을 繼承하여 國民保健向上에 기여하여 오신 韓藥業士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를 드리면서, 韓藥業士로 구성된 大韓韓藥協會가 정성을 모아 學問의 발전을 目的으로 1997년 4월 會誌를 創刊한 후 年例적으로 發刊하는 努力으로 금번 제6호지를 發刊하게 되는데 대하여 眞心으로 祝賀를 드

립니다.

오늘날 인류공인 의학으로 발전한 西洋醫學은 尖端의 境地에 이르렀다고 하나, 서구국가에서는 限界를 認識하고 韓方理論에 대한 世界的인 觀心과 理解를 높이고 있어 금세기 知識情報化 社會에서는 東·西醫學의 만날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智慧와 經驗의 결정체인 韓方醫學을 더욱 갈고 닦아 人類保健에 奉仕할 책무가 이 나라 韓方人들에게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學術活動은 더욱 보람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금번 會誌는 물론 앞으로 지속될 學術事業에 秘方公開 禁斷의 慣行을 이미 떨쳐 버리고 그간에 쌓아온 값진 知識과 經驗을 公開하는 學術의 장을 과감하게 펼친 崇高한 뜻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學術事業으로 發刊되는 본 會誌가 年輪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나라 韓藥發展에도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所任을 다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醫·藥 行政을 관장하는 우리 부처가 계속하여 關心을 갖고 최선의 努力을 다할것임을 다짐하면서 貴 大韓韓藥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2年 6月